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OUL IS FAIR

가제 : 추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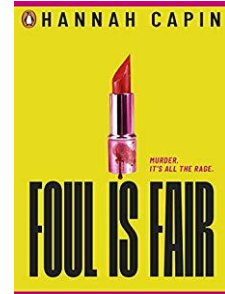
저자 : Hannah Capin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20년 1월 1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문학



- * “어둡고 잔인한 복수 판타지, 페미니즘적이며 아름다운 산문으로 가득한 서사.”- 『People Like Us』의 저자, 다나 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이 빼앗아간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아내려는 한 소녀의 이야기”
『Only Mostly Devastated』의 저자 소피 곤잘레스

제이드 카잔드라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 셋은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는 소녀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네 명의 소녀들이 제이드를 공격했고 제이드는 그들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열여섯 살이 된 제이드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들인 제니, 썸머, 매즈와 함께 보드카를 마시고 하이힐에 짧은 치마까지 입고 거침없이 밤 거리로 나섰다. 제이드는 난생 처음 금발로 염색을 했고 자기만큼이나 들떠있는 친구들과 함께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학생들이 모인 파티 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이드는 그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제이드와 친구들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 갔을 때 끝내주는 미소를 가진 한 남학생이 제이드에게로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제이드는 금방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을 포함한 다른 남학생들은 휘청거리는 제이드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이드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목격자는 오직 어딘지도 모르는 방에 갇혀있던 제이드 자신뿐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 당시 제이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제이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것이었다. 그 다음엔 얼룩덜룩해진 화장을 말끔하게 지웠고 콘택트 렌즈는 바로 쓰레기 통으로 던져버렸다. 제이드는 그 소녀들이 ‘어린 창녀’라고 부르던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서 없애 버렸다. 그리곤 금발로 염색했던 머리를 원래 머리보다 더 까맣게 물들였다. 다음 날 아침, 제이드는 괴로움과 울분에 젖어 침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눈을 뜨자마자 네일 샵으로 향했다. 제이드에게 손톱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체 부위였다. 제이드는 그런 자신의 손톱이 부러져 있는 것을 결코 용납 할 수 없었고, 손톱 관리사에게 부러진 손톱을 다듬고 더 긴

손톱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손톱 관리사는 제이드에게 무슨 색깔을 선택할지 물었고 제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머리 색을 보여주며 ‘복수의 색깔’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손톱 관리사는 제이드의 목덜미에 난 상처와 얼굴에 굵힌 자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제이드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러곤 제이드에게 나지막이 그 남자를 죽이라고 속삭였다. 제이드는 이제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제이드는 다시 침실에 모인 세 친구들과 함께 먼저 그 네 명의 소년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립스틱으로 그 가해자의 이름들인 던컨, 더피, 코너, 뱅스를 종이 위에 적었다. 네 소녀들은 마치 마녀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아름다운 건 추악하고, 추악한 건 아름답지.’라는 맥베스의 대사를 함께 읊었다. 제이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경찰서에 가서 말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들 속에서 유유히 풀려나는 범죄자들의 자유로운 표정들을 너무나 많이 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이드는 친구들의 간곡한 부탁대로 먼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제이드는 부모님에게 이후 일은 다 스스로 처리할 것이며 단, 그 남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로 전학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했다.

다음 날 제이드는 친구들과 약속한대로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원 사람들은 제이드가 마치 빨리 수리부터 해야 하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대했다. 병원 사람들은 제이드와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충고 했지만 자신의 딸의 계획을 존중해주고 싶어했던 그녀의 엄마는 그 모든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해버렸다. 한편 친구들은 제이드가 부탁한대로 여태까지 남아있던 제이드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고 있었다. 그 네 명의 가해자들이 제이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고 있어서는 안됐기 때문이다. 제이드는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야만 했다. 하지만 제이드에게 이 사실 하나만은 명확했다. 그들은 제이드에게 그 어떤 부정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제이드는 곧 그 네 소년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망을 보고 있던 던 포터와 제이드의 음료에 정체를 숨겨 놓은 말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냈다. 제이드는 그 범죄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문턱을 넘으며 자신은 결코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제이드는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의바르고 양전한 학생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곤 아무도 모르게 가해자 소년들을 파괴시킬 음모를 짰다. 제이드는 그 소년들이 장악하고 있는 학교 내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그 위에 올라서기로 결심한다. 제이드의 복수는 성공하게 될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이 사회를 한 향한 한 소녀의 통쾌한 복수극이다.

<저자 소개>

한나 캐핀 (Hannah Capin)은 『DEAD QUEENS CLUB』 과 『FOUL IS FAIR』 의 저자이다.

제목 : THE WISHING STAR
가제 : 소원을 들어주는 별을 향해
저자 : Emma Beswetherick
출판사: Rock the Boat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80 페이지
장르 : 모험 소설 / 시리즈 예정



*** 소녀들 역시 인형 놀이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우주 탐험을 꿈꾼다. 재기 발랄한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한 이야기.**

케이티, 캐시, 지아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었다. 이 소녀들은 어느 날 하늘을 날아서 우주 탐험을 떠나기로 계획한다. 하지만 고양이 썬더 덕분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까지는 진짜 이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케이티는 아빠, 유기묘 출신 고양이 썬더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이다. 바쁘고 정신 없는 아침 케이티가 가는 곳곳마다 썬더가 장난스럽게 길을 막았고 아빠는 케이티를 따라 다니며 머리를 묶어주느라 바빴다. 다른 아이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었지만 케이티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근거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새로운 반에서 사귄 친구들이 오늘 케이티의 집으로 오기로 한 첫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케이티가 새 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해도 다른 친구들은 일찍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든 상태였고 케이티는 그 중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 지아와 캐시가 케이티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셋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케이티는 이미 그 친구들과 평생을 알아왔던 것 같은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쉽게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케이티는 오늘을 너무나 기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함 역시 느끼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셋은 함께 하면서 ‘더 플레이데이트 어드벤처 클럽’을 결성했다. 세 소녀들은 마침 학교에서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열성적인 코코 선생님 덕분에 브라질의 우림, 공공 얼어 붙은 북극, 사하라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여러 곳의 신비한 지역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수업에서 영감을 얻은 세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클럽 모임에서 만나 직접 그런 장소들로 떠나는 상상을 하며 신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케이티는 방과후 친구들과 함께 할 이 모임을 기다리느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클럽 활동에 푹 빠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티는 수업 시간에 지구 밖 행성들과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케이티는 그 순간 지구 밖을 넘어 우주로 탐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케이티에게 오늘은 결코 평범한 날일 수 없었다.

방과 후, 케이티는 친구들과 집에 도착하자 고양이 썬더를 소개했다. 지아는 귀여운 썬더를 바라보다 그의 한쪽 눈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케이티에게 물었다. 사실 썬더는 케이티의 아빠가 구조해서 이 집으로 데려오기 전 길거리에서 생활하다 다른 고양이들과 싸우는 바람에 한쪽 시력을 잃은 고양이였다. 하지만 케이티의 아빠와 케이티는 썬더에게 분명 다른 고양이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케이티는 고양이를 돌려보내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침실을 보여주었다. 불을 끄자 천장에는 야광별들이 가득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큰 별이 있었는데 케이티는 그 별을 아빠가 일러준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이라고 소개 했다.

케이티와 친구들은 천장의 별들을 바라보다 정말 저 먼 우주에 소원을 이루어 주는 별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케이티는 자연스럽게 요즘 우주에 관한 수업 들으며 느꼈던 이야기들을 꺼냈고 세 소녀들은 한 마음으로 다음 탐험 목적지를 우주로 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여태까지 상상로나마 떠났던 장소들은 지구에 있는 곳들이었고 어떻게든 목적지로 소녀들을 데려다 줄 운송 수단이 있었다. 하지만 우주로는 대체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소녀들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바로 그 때, 썬더가 케이티의 방문을 긁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썬더는 개냥이 같은 고양이였고 식구들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으면 재활용 박스에 들어 있는 물건을 밖으로 다 꺼내놓는 버릇이 있었다. 지아는 그런 고양이를 지켜보다 폐품으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로 가자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케이티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재활용품을 모아둔 상자와 각종 만들기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과학자인 엄마와 함께 평소에 장난 삼아 만들기 놀이를 즐겼던 지아는 케이티가 갖고 온 폐품들을 잠시 주의 깊게 살펴보니 우주선의 설계도를 똑딱 그려냈다. 지아의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과 캐시의 섬세함, 케이티의 재기 발랄함이 하나로 모여 겨우 이십 분 만에 그들은 세 사람이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우주선 로켓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세 친구들은 마침내 우주선으로 들어가 서로 손을 마주잡고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 다음 한 목소리로 우주로 떠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녀들의 몸에서는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동시에 몸이 덜덜 떨리면서 몸이 탄산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10 초 후 소녀들은 이전처럼 평범한 느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먼저 눈을 뜬 케이티는 지아와 캐시에게 눈을 떠보라고 속삭였다. 케이티와 캐시, 지아는 정말 재활용품으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게 된 것일까?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 정말 세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일까? 우주탐험을 떠나게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엠마 베스웨릭 (Emma Beswetherick)은 그녀의 딸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책을 쓰는 작가이다.